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 성경 신학, 세션 9, 새 언약

© 2024 제프리 니하우스와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세션 9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최종 언약이며 특별 은혜 프로그램에서 절정에 달하는
언약입니다.

그것은 기능하는 유일한 남은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먼저
언약 중재자 선지자로서의 예수와 그 배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것에 대한 간단한 요약일 뿐입니다.

그는 신명기 18장에 약속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토라와
새로운 언약,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토라, 새로운 계약을 가진 언약
중재자 선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가 독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된 선지자입니다. 그는 약속된 언약을 중재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언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것은 갱신 언약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
장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갱신 언약은 확실히 갱신하는 언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거래, 새로운 신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신권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거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43장, 한 목자 다윗의 약속,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에 대해 말입니다. 그는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자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다윗이 중재할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다윗, 사랑하는 예수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전합니다.

에스겔 37장,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을 따르고, 내 법령을 지키는 데 주의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새 언약은 유일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두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의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민족들은 내가 주이며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믿는 자의 삶의 역동성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내 백성, 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사랑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예수는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은 어떨까요? 학자들, 신약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역사학에서 다소 독특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들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 이상이다. 이전에 Gordon-Conwell에서 가르쳤던 Meredith Kline은 나의 멘토였는데, 복음 장르가 실제로 그것의 또 다른 예이며, 모세의 경력이며, 우리는 그것을 Exodus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복음 장르는 부분적으로 전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 사이에 성전의 현존을 확립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언약의 중재자의 전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주요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평행선을 발전시켰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탄생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박해로부터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위험, 즉 왕으로부터의 도피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은 언약 중재자를 효과적으로 죽이려는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의 비행 후의 귀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의 정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초기의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율법은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재정의합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표현합니다. 그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은 더 많은 지시와 표적과 기사를 얻습니다. 변형이 있거나, 산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그렇습니다. 확실히 언약 제도가 있습니다.

언약 비준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이 내 언약의 피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흘리지 않았지만 곧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장막 회의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오신 것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한두 가지가 있고, 특히 이 사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알아낸 날짜에 따라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그는 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하는 대로 한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돌아와. 그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러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격노했다. 그들은 천사로부터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는다.

그래서 그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목표는 특별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이 정치적 왕국으로서의 자신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 매우 다른 종류의 왕국과의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확립된 권위를 보호하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입니다.

목표는 그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파라오가 이 명령을 내릴 때, 그는 죽을 모든 남자 아이들 중에서 죽을 사람이 언약의 중재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생각해. 봐, 그들은 번식할 거고, 우리에게 위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수컷은 죽이자. 우리는 여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우리는 남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상 모세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 중 하나이고, 우리는 그가 그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마의 지문이 이런 것들에 모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라오는 표적들 중 표적이 바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구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언약을 중재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적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파라오, 태양신의 화신, 거짓 종교의 화신인 파라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유사점인데, 두 경우 모두 대상이 언약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두 경우 모두 실패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언약의 중재자가 될 사람을 파괴하려는 노력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는 아동 희생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언급했고, 오늘날 낙태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진술은, 누구든지 인간의 피를 흘리면 그의 피도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imago Dei*는 이런 경우와 아동 희생의 경우처럼 인간을 죽이거나 살인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 하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정의의 문제, 어떤 일에 대한 사형과 같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숙고하도록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낙태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낙태를 할 권리를 유지하고, 심지어 증가시키고, 확대하거나, 심지어 아이를 낳은 후에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몇몇 주에서 입법화한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의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 은혜에 구현된 원칙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적용되며,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맞죠? 그것은 타락 이후의 그 당시에든 사실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형상이며, 그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때때로 처음에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글썄요, 우리가 지적했듯이, 언약 중재자 선지자는 종종 전쟁에 연루됩니다.

모세에게도 사실이었고, 예수에게도 사실입니다. 예언적 기름부음이 계속됩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았고, 그는 나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울도 기름부음을 받았고, 그는 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글썄요, 예수는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한계 없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쟁 후에, 그 기름 부음 후에, 그는 나가고, 거기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나 당신이나 나 또는 누구든지 참된 사역에서 사용하신다면, 만약 주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어둠의 왕국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든, 가르치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치유받든, 상담을 하고 상담의 도움으로 그들이 삶에서 죄를 극복하고, 더 잘 이해하고, 주님을 더 잘 경배하도록 돕든 말입니다.

그게 다 전쟁이야. 그리고 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적은 양보하고 싶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로 전쟁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기름부음을 받은 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사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합니다. 그는 골리앗으로부터의 자신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골리앗과 함께 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사울은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들과 함께 가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모두 예언과 전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New King James에서 번역한 마태복음 11장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그것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전쟁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진전됨에 따라, 그것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박해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박해하고, 나 때문에 당신에게 온갖 악을 거짓으로 말할 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하였으니라.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확실히 영적인 것일 수 있다.

예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그는 이렇게 특징지으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의 소유물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은 악령이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령의 집입니다. 그리고 악령은 그 사람을 가집니다.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이 공격하여 그를 압도하면, 그는 그 사람이 신뢰하던 갑옷을 빼앗고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의 전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글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전쟁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즉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또한 인간 권위에 대해서도 사용되는데, 그는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심지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원수가 미워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원수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전쟁은, 단순히 개인적인 전쟁에 대해 말하지 않고, 교회의 전쟁은 선교적 형태를 띕니다.

선교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저는 이런 유사점을 그렸는데, 제게는 꽤 흥미로운 점이고, 제가 이 문제에 민감해진 이유는 아시리아 연대기를 읽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가서 진을 치고, 그다음 계속 가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고, 계속 가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고, 또 다른 승리를 거두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정 보고인 셈이죠.

그들의 연대기에서, 당신은 여호수아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여호수아 3장 등에서 당신은 정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정복합니다.

바울에게서도 같은 것을 얻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행하며 정복하고, 즉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국의 형태 때문에 군사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암시하는 좋은 종류의 평행선입니다.

당신은 국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을 왕국으로 데려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전쟁이 진전되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영적 전쟁이 한 정복지에서 다른 정복지로 진전되었습니다.

음, 성전 봉헌은 어때요? 우리는 교회와 같은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언적 기름부음이며, 아마도 다윗과 비슷하거나 연상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왕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매일 그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는 항상 제한 없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름부음을 받았고, 나아가 왕국의 일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왕국 전쟁을 하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서 이전에 언급했듯이, 성령이 임하여 성전을 채우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의 성전이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영의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성전이셨고, 또한 영의 권능으로 선교하는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의 성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글썄요, 예수는 성전이라고 불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후, 오순절 이후로 신자들은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왕국의 새로운 형태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종류의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상의 성막이나 천막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물을 얻었고 하늘에 영원한 집을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천막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처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에 신음합니다. 베드로는 이 몸의 천막에 사는 한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막이거나, 살아 있는 성전, 말하자면 살아 있는 돌들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확실히 성화를 포함하고, 사역과 박해에서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성전에 관해서도, 저는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학생과 기도할 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초대하여 기도해야 할 일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그것들을 마음에 떠올리게 할 때, 우리는 각각을 효과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용서하세요. 신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그를 놓아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성화

과정을 이룰 수 있는 온갖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과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이것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진지하게 그것을 행할 때, 그분은 당신과 저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화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속한 특권의 일부입니다.

기업 성전은 어떨까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기업 성전은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전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것의 건축가이자 건설자는 그리스도 입니다 .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읽은 것처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합쳐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

그래서 , 일하는 분이 한 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우리를 다른 직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가 주신 은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사와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나쁘지 않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파와 카리스마파의 사람들, 그리고 저는 그것들에 대해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등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사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은사가 부족하다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정말 매우 미숙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자는 아버지의 아내를 두고, 그들은 당파적이고, 등등. 그러니까 선물과 과일은 다릅니다. 저는 선물을 도구 상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훌륭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왕국의 일을 완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당신의 발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의 나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글쎄요, 궁극적으로,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 성전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래전에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결국 끝날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강을 따라, 당신은 이 나무들이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22장에서, 저는 여기에 많은 평행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정의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성경에서 특정한 것들이 계시되고 재진술될수록, 더 명확해지고, 더 정의가 된다는 원칙에 따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종말론적 현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것은 에덴에서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매우 간단한 설명을 얻습니다. 당신은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에덴이 성전이였다는 생각을 지적하는 증거 중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종말론적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종종 말하듯이, 종말의 시각은 평행선 또는 시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이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강이 있을 것이고, 생명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직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유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수의 강물이 그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 나중에 받게 될 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2장에서 잎사귀가 치유를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듯이, 그것은 실현되고, 당신과 저도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비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현실은 어린 양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위에 계신 하나님, 주님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신이 모든 것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범신론자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왜곡된 방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신은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더욱이 궁극적으로, 명백히, 종말론적으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하늘과 땅은 어떨까요?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제 생각에, 우리가 여기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전을 조롱조로, 글썄요, 당신은 구름 위에 있고,

황금 하프를 가지고 있고, 영원히 하프를 연주하는 것은 지루하지 않을까요? 알다시피, 저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구입니다. 지구를 의미합니다. 앤서니 호크마가 신의 형상에 대한 책 중 하나에서 썼듯이,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완전히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새 땅이에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주입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학자들이 영원한 안식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썄요,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는 창조의 마지막에 주님이 가지셨던 안식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그는 자신의 일을 쉬셨습니다. 글썄요,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요? 창조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일하며, 우주를 지탱하며, 역사에 자신을 주입하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오늘날까지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나도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지상의 일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에서 쉬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볼 것입니다. 새 하늘과 땅의 본질, 물리적 본질은 구약의 예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은 때때로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 이런 종류의 것도 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등등.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인류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ktisis ,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 또는 첫 번째 아담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늘과 땅을 가졌고, 아담 언약에서 인류를 가졌습니다. 글쎄요, 두 번째 아담이 맺은 언약으로 우리는 새 인류를 얻었고, 우리는 새 하늘과 땅을 얻을 것입니다 .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평행이 있습니다. 새 땅은 물리적일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읽을 때, 글쎄,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비유적인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늑대는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고, 표범은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와 사자와 한 살 된 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고, 등등.

저는 우리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계시록 22장을 기억한다면 식물이 있을 것이고,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이 왜 없을까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비유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큰 보편적 평화의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문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만화처럼 곰들이 걸어다니면서 말을 걸어오는 그런 내용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누가 알겠나요? 하지만 동물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터가 묘사되어 있고, 여기서도 물리적 식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물리적 식물과 동물을 나타냅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순전히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물리적인 것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당신은 이 하늘의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나는 너를 청록색 돌로, 사파이어로 너의 기초를, 루비로 된 성벽, 반짝이는 보석으로 된 문 등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그들의 은과 금을 가져올 것이다. 누군가는 그런 종류의 예언을 보고, 글썄, 이것은 이 새로운 땅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주님을 공경하고, 그를 경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묘사하는 구약성경의 물질주의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비유적일 수도 있고 문자적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제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은 그 빛이 되실 것이다(이사야 24:23). 달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은 시온 산과 예루살렘과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잠시 이것으로 돌아가서 영광스럽게(gloriously)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용어는 단지 명사인 영광일 뿐이며,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gloriously)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도 기본 명사 의미인 영광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이 때, 이 일이 일어날 때, 이사야 24장, 우리가 노아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실현될 때, 모든 죄가 처리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의 백성 가운데에 현존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구름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고, 폭풍의 신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그의 구속받지 않은 영광 가운데 거기에 계실 것이고, 시나이 산 기슭에 있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참을 것이고, 그의 거룩한 면전에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충만한 영광이 그의 장로들 앞에 있을 수 있고 그의 모든 백성 앞에 전체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은 아들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60 장도 마찬가지로 예언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되실 것이고, 주님이 당신의 영원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계시록에서 성취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에서 보석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했으므로 계시록 21장에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석 도시, 이 보석의 기초 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문, 12개의 진주, 도시에는 금으로 된 거리가 있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사야서에서 본 것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등불을 주기 위해 태양이나 달이 그 위에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양이 그 등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사야에 있고 계시록에서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종의 비유적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물리적인 땅으로 시작하셨고, 원수가 그것을 어지럽혔습니다. 주님은 원수가 그것을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것이 주님이 그의 목적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통찰력은 실제로 지구 시력 과 평행합니다 .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갖게 될 것이고 , 그것은 물리적인 것을 갖게 될 것이고, 저는 거기에서 기대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돌아서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언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요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잘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 때 임합니다. 그는 한량없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그를 통해 일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 전체가 전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언약을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립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성전을 세웁니다. 이 경우 성전은 교회, 살아있는 돌들의 성전이며, 개인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언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언약 신학에 대한 고전적 관점은 아담 또는 창조 언약에는 행위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언약이 행위를 수반하며, 그것들은 모두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도움이 되는 특징 설명이 아닙니다. 노아 언약이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창조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특별한 은혜 언약입니다. 이 구성은 그것을 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도 서로 다르지만 관련이 있는 언약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언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유용하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일관성이 없는 용어 사용입니다. 존 월튼은 노아 언약이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구별합니다. 하지만 그도 여러 언약을 한데 묶고, 모든 특별 은혜 언약을 한데 묶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다윗 언약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모세 언약이 더 이상 언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 왕이신 새 언약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합니다.

그런데도 콜로새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언약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주 명확히 밝힌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제로는 단 하나의 특별한 은혜 언약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덤브렐이 이 모든 언약이 기존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제안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용한 예 중 하나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언약의 본질이 기존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좋은 예가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상 히브리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척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주님과 상의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근처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반드시 기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형적으로 언약은 가신을 새로운 관계로 이끕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에 들어간 후, 주님과 맺은 관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하길 원하는지 않든,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따라야 할 모든 율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희생 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기존 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전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언약은 그것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잠깐 벗어나서 말하자면, 이것은 결혼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약혼했습니다. 당신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결혼 언약에 들어가면, 말라기는 결혼을 언약으로 특징짓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이해가 아닙니다.

Dumbrell의 생각에 따르면 언약이 기존 관계를 확인한다는 생각은 조화롭고, 모든 언약이 실제로는 하나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약이 기존 관계를 갱신하거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림에 맞지 않습니다. Scott Hafeman은 그의 책 *The God of Promise* 에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요약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관점은, 제 생각에, 우리는 하나의 구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언약적 배열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통 은혜 언약, 아담과 노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하나의 법적 패키지를 형성하고, 특별 은혜 언약이 생겨나 기능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또는 맥락, 세계, 행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특별 은혜 언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이며, 하나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아들로써의 입양이 그들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신성한 영광, 언약이 있는데, 이는 언약이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을 충분히 분명히 나타냅니다. 율법을 받는 것, 성전 예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전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약속의 언약은 특별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것이 예상하는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모세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교육적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을 예상합니다.

다윗 언약은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사실, 예수는 다윗 언약에 연루된 약속된 다윗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전의 특별 은혜 언약에서 요구되거나 기대되거나 약속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글쎄요, 율법과 새 언약에 대한 몇 가지 성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해 로마서 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NIV를 읽어보면 이 섹션의 제목인 죄와의 투쟁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저는 아니요, 이게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알지 못 합니까 ?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만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기혼 여성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결혼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통녀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법에서 해방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통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유사점을 이해하십시오.

그 여자의 남편이 죽으니 그녀는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그에게 죽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살아있는 현실이 아니므로 그녀는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한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악의 본성 곧 육신에 지배를 받았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악의 정욕이 우리 몸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얹매던 것에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해방되어 기록된 옛 방식이 아니라 영의 새 방식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평행은 결혼, 죽음, 그리고 율법의 평행입니다. 남편이 죽고, 그녀는 결혼의 율법에서 해방되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역행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요점은 남편이 죽으면, 제가 말했듯이, 여자는 사실상 남자와 관련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율법에 대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재혼의 평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썄요, 우리가 말했듯이, 그때의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래입니다. 이 진술에서 또 다른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악적인 정욕은 우리 몸에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 교육적이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한 방법 중 하나는, 거기에 관련된 역동성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했듯이, 아시다시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탐욕이 저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지자 온갖 탐욕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글썄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스러운 본성 때문에 금하는 바로 그 죄를 자극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반 친구와 그의 아내가 어린 검은색 래브라도 강아지를 막 사서 거실 카펫에 강아지가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저녁 저에게 말했어요. 그는 거실에서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강아지는 주방에 있었고 카펫 문턱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자신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강아지는 카펫을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타락한 존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기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그리고 이것은 적의 손에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콜로새서 2장에서 이 무기, 우리를 대적하는 이 법적 법안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그는 원수의 손에 무기를 주었고, 원수는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악적인 정욕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부정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과일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뱀이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성입니다. 물론, 그 경우,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스러운 본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교육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이 오기 전에, 새 언약 전에,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전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었고,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노예 상태이며,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자가 어린아이인 한, 그는 더 이상 노예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세 언약에 따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는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와 수탁자에게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기본 원칙, 즉 여기의 스토이케이아 에 따라 노예로 지냈습니다 .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여 우리로 아들의 온전한 권리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영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속자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보호자와 수탁자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 세상의 원칙, 기본 원칙에 노예가 되는 것으로 특징지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등등.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기본 원칙은 헬레니즘과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영을 포함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의 힘 없이 율법 아래에서는 법을 어기려는 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율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더 자주, 어떤 식으로든 당신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면, 물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마음 속에서 매우 자주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의는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죄의 포로이며 온 세상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에 지배받았을 때, 우리는 묶였습니다. 우리는 포로였습니다.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그의 죽음에서 그와 연합되었다면, 세례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의식을 일깨우고 심지어 원수에게, 말하자면, 우리를 대적하는 도구를 줍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법적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세상의 기본 원리인 *stoicheia* 에 기회를 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점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첫 번째 구절이 나오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토브, 선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고, 원하는 만큼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든 고대 근동의 왕이든 셋족 이든, 또는 당신이 따르고 싶은 어떤 사상 학파이든, 나쁜 행위자들의 무리인 듯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terminus technicus*, 즉 기술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창조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구약성경에서만 천사와 천사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즉 새로운 창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담은 누가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도록.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자녀로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행한 특별한 오락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은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고,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의무가 있지만, 죄스러운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죄스러운 본성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으로 몸의 악행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으로 만드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됨의 영을 받느니라.

그분을 두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 등을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적용 지점이며, 아마도 적용 지점으로 끝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의 개별적인 성전인 우리는, 영의 단체적인 성전인 우리는, 새로운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인 우리는, 옛 언약에서 그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갖지 못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던 아담조차도 갖지 못했던, 이 능력,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것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와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영의 힘으로 육체의 행위, 육신의 행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또는 로마서 6장에서 말했듯이, 죄가 당신의 주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나, 맞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고, 이런 식입니다. 저는 그것이 수사적 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아래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더 이상 살아야 할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당신이 최근에 주님께 온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글썄요, 당신은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과정 에 있을 때 27살 때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많은 오래된 태도와 제가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고 저를 도우면서 점차적으로 제거해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초기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봐요, 여전히 잘못된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위대한 바울조차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요. 하지만 로마서 6장과 8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서로 맞지 않는다고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로마서 7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주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은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읽은 영의 자유로 점점 더 옮겨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신은 영의 권능으로 육체의 행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초기 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점차 그것에서 멀어져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더 나은 약속과 새 언약 아래서의 삶의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옛 약속을 성취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방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약속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으며, 믿어서 약속된 성령으로 그 안에서 인장이 찍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 언약 하에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논평을 마칩니다.

그럼,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은 성경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세션 9입니다.